

楚辭의 詠物

沈成鎬*

◁ 목 차 ▷

I. 緒言	3. 詠物憂國
II. 楚辭의 詠物 類型	4. 詠物祭神
1. 詠物比德	III. 結語
2. 詠物自況	

I. 緒言

시는 시인의 뜻(志)을 드러내는 노래이며, 뜻은 사물(物)로부터 말미암아 움직이고, 사물에서 느껴 말로 드러나는 까닭에 모든 시는 詠物의 요소가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시 가운데 「영물이란 체제는 사물의 정태를 모두 궁구하고 사물의 생태를 모두 파헤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시학의 요체는 영물보다 우선적인 것이 없다.」¹⁾ 그럼에도 영물의 원류나 詠物詩에 대한 연구 성과는 그다지 많지 않다.

우선 영물시의 범위부터 생각해 보자. 「사물을 가리켜 읊는 것을 詠物이라 한다」²⁾라는 정의에 따른다면, 영물시의 범위는 대단히 넓다. 우리 주위는 화초·나무·과일·새·짐승·벌레·고기·곤충 등과 같은 자연의 동식물, 해·달·별·구름·눈·서리·바람·무지개·산·강·호수·눈 등과 같은 자연현상, 농기구·바늘·실·천·옷·짚신·가위·수레·배·부채 등과 같은 생활품, 사람과 인체 등등 사물 아닌 게 없고 이런 사물이 소재로 쓰이지 않는 시도 드물 것이다. 그러나 사물이 시의 소재가 된다고 해서 모두 영물시라고 할 수 없고 오늘날 시의 일반적인 분류에서 영물시는 전적으로 사물이 읊는 대상이 되고 묘사의 주체가 되는 詩作을 가

* 위덕대학교 동양어문학부 조교수

1) 清 俞琰 <詠物詩選序>: 「詠物一體, 以窮物之情·盡物之態. 而詩學之要, 莫先於詠物矣.」(丁琴海 <古詩描寫大全>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1994), 11쪽.

2) 宋 范仲淹 <賦林衡鑑序>: 「指其物而咏者, 謂之詠物.」(《漢語大詞典》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제11권), 117쪽.

리킨다.³⁾ 객관사물이 그 자체로 독립적인 심미가치를 갖추고 있으며, 시인이 그 객관사물을 독립적인 심미대상으로 인식하여 그 사물을 묘사의 주체로 표현했을 때 엄밀한 의미에서 영물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중국시가사에서 엄밀한 의미의 영물시는 六朝의 齊梁 시기에 성행하기 시작했지만⁴⁾ 육조의 영물시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며 훨씬 이전에 싹트기 시작했다. 그 원류를 찾자면 우선 중국 최초의 시가집인 《詩經》에서 시작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시경》의 <魏風·碩鼠>, <小雅·鹿鳴>, <小雅·鴻雁>, <小雅·鶴鳴> 등에는 각각 쥐·사슴·기러기·학 등이 比興 수법으로 운용되어 比喻 혹은 聯想 작용을 일으키는데, 객관적인 사물이 시의 재료로 운용되었다는 점에서 영물시의 성분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독립적인 묘사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후세의 본격적인 영물시와는 차이가 난다. 또 《시경》 가운데 가장 뛰어난 佳句로 일컬어지는 「옛날 내가 떠날 때는 버드나무 푸르렀는데, 지금 내가 돌아간다면 눈만 펄펄 날리리」⁵⁾와 같은 구절도 그 자체로 보면 훌륭한 영물이다. 《시경》에서 이러한 구절을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부분적인 영물이어서 또한 후세의 본격적인 영물시와는 거리가 멀다. 요컨대 《시경》에서 후세 영물시의 직접적인 원류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것은 《시경》이 대부분 사회시이거나 애정서정시이고 장기간에 걸쳐 민간에서 나온 집체적 가요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지극히 자연과 밀착하고 개성적이며 유미적인 영물시와는 성격상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시경》 이후, 戰國時代末 남방에서는 楚辭가 나왔는데, 초사는 시기적으로 《시경》보다 후대이므로 좀더 발전된 영물이 나왔을 것이고, 또한 초사의 배경이 되는 남방지역은 《시경》의 북방지역에 비해 영물의 재료가 훨씬 풍부하므로 《시경》보다 한층 발전된 영물이 나왔을 것이다. 또한 영물시는 육조의 齊梁시기부터 본격적으로 성행하지만 詠物賦는 이미 後漢부터 성행하기 시작했다. 곧 영물은 詩보다 賦에서 먼저 성행한 것이다. 그렇다면 영물의 원류를 부에서 찾는 것이 옳다. 그리고 부의 원류는 초사에 있으니 초사에서 영물을 검토해야 된다. 본고는 이러한 전제 아래, 초사를 대상으로 좀더 발전된 형태의 영물을 찾으려고 한다. 나아가 초사에서 운용된 영물의 특성을 개괄하기 위하여 부분적인 영물이나 영물의 특성을

3) 丁琴海 《古詩描寫大全》: 「所謂詠物詩是指那些專門以‘物’爲吟咏對象和描寫主體的詩作。」(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1994), 1쪽.

4) 王夫之, <薑齋詩話>: 「詠物詩, 齊梁時多有之。」(丁仲祐 《中國詩話選·清詩話上》 영인본), 34쪽.

5) <小雅·采芣>: 「昔我往矣, 楊柳依依. 今我來思, 雨雪霏霏。」

갖춘 작품을 찾아서 그들을 유형별로 정리할 것이다. 그리하여 초사가 후세 영물시의 직접적인 원류임을 밝히고자 한다.

II. 楚辭의 詠物 類型

후세의 본격적인 영물이라면 표현대상에 따라 詠天·詠水·詠花·詠木 등으로 분류하거나 좀 더 세분하여 詠日·詠月·詠雲, 詠湖·詠泉·詠江, 詠梅花·詠桃花·詠杏花, 詠橋·詠松·詠槐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초사에서 영물은 아직 객관적인 사물이 독립적인 심미대상으로 표현되지 못했으며, 다만 시인의 뜻과 정감을 표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물이 종합적으로 동원된 수준이다. <橋頌> 한 편만 시중 굴을 대상으로 노래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군데군데 여러 가지 동식물이 표현되어 있다. 따라서 초사의 영물 유형은 표현대상에 따라 분류하기는 곤란하다. 초사는 《시경》의 言志傳統을 간직하고 있으며, 사물을 동원하여 노래하는 목적도 기본적으로 '言志'이다. 그래서 초사의 영물은 모두 '詠物言志'라고 할 수 있지만, '언지'의 내용에 따라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눈다면 比德, 自況, 憂國, 祭神 등 네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1. 詠物比德

比德이란 《荀子·法行》과 《說苑·雜言》에 나오는 말로⁶⁾ 자연물로서 인간의 품성을 비유하는 방법을 말한다. 자연물로 인간의 품성을 빗대어 말하는 방법은 《시경》과 《논어》에도 많이 보인다. 하지만 《시경》은 민간 가요에서 나온 것이어서 비덕의 일정한 체계를 형성하지 못했고, 《논어》도 시가 아니니 영물시와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초사 특히 굴원의 작품(屈賦)에는 자연물을 재료로 한 영물이 일정한 체계를 이루고 있다. 굴원은 이들을 단순히 영물의 대상으로 관조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자신의 시속에 용해시켜 각종 인물의 성품에 비유하였다.

굴원은 초나라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였으며, 일찍이 조정에서 추방되어 오랫동안 산과 들을 전전하였기 때문에 초나라에서 성장하는 여러 가지 동식물과 친숙하고 초목조수의 생태와 성질을 잘 파악하고 있었다. 吳仁傑의 《離騷草木疏》에 의하면

6) 《荀子·法行》:「夫玉者, 君子比德焉. 溫潤而澤, 仁也, 栗而理, 知也, 堅剛而不屈, 義也……」
《說苑·雜言》:「玉有六美, 君子貴之. 望之溫潤, …… 望之溫潤者, 君子比德焉。」

<이소>에 나오는 초목만도 55종이나 된다. 굴원은 이들을 운용하여 다양한 내용을 구성하였는데, 그가 이들을 대량으로 운용한 것은 '好修'의 기질이 창작에서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소>가 굴원 자신의 고결한 인품과 높은 이상을 시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라 한다면, 작품 속에 나오는 '好修'는 전편을 꿰뚫는 핵심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선천적으로 아름다운 품성(內美)을 지녔고 거기다가 뛰어난 능력(修能)마저 갖추고 있다. 「사람들은 제각기 즐기는 바가 있지만, 나는 홀로 수식을 좋아하여 법도로 삼네(民生各有所樂兮, 余獨好修以爲常)」라고 노래한 것처럼 그는 유독 '修'를 좋아한다. <이소>에서 '修'는 '好修' '修能' '修名' '前修' '信修' 등으로 모두 19차례나 나오고 자신이 섬겼던 懷王을 '靈修'라고 부른 것을 보아도 '修'에 대한 애착과 호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 그는 자신의 '好修'를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초목조수를 재료로 운용하였다.

扈江離與辟芷兮,	江離와 辟芷라는 향초를 몸에 두르고
紉秋蘭以爲佩.	秋蘭을 엮어 허리에 찻네.
朝搴阨之木蘭兮,	아침엔 阨山의 목란을 뜯고
夕攬洲之宿莽.	저녁엔 모래톱의 숙망을 캐네.
朝飲木蘭之墜露兮,	아침엔 목란에서 떨어지는 이슬을 마시고
夕餐秋菊之落英.	저녁엔 국화의 떨어진 꽃부리를 먹네.
苟余情其信姱以練要,	참으로 내 마음 진실로 아름답고 정스럽다면
長願頤亦何傷?	오랫동안 굶주린들 어찌 슬프리오?

<離騷>

여기에 영물의 재료가 된 江離, 辟芷, 秋蘭, 木蘭, 宿莽, 秋菊 등은 모두 香草로서 굴원의 장식 대상이다. <구장>에서 「난 어릴 적부터 진기한 服飾을 좋아했는데, 늙어서도 변하지 않았네」⁷⁾라고 노래한 것처럼 굴원은 기질상 기이한 복식으로 장식하기를 좋아했다. 본디 장식은 자체로서 외형적(시각적) 아름다움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내면적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그가 갖가지 향초로 장식하는 意象은 외형적 아름다움을 묘사할 뿐 아니라 내면의 인격적 아름다움을 상징하기도 한다. 향초를 몸에 두르거나(扈), 허리에 차거나(佩), 뜯거나(搴), 캐거나(攬), 마시거나(飲), 먹기도(餐) 한다는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고결한 품덕을 갈고 닦는 것을 상징한다. 朝夕이란 시간적 意象과 阨洲라는 공간적 意象과 함께 각종 향초를 노래한 것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성품을 수양·연마하는 것

7) <九章·涉江>: 「余幼好此奇服兮, 年既老而不衰。」

을 표현한다. 목란은 껍질을 벗겨도 죽지 않고 속망은 거울에도 시들지 않는 생태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⁸⁾ 외부의 어떠한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내적인 아름다운 성품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굴원의 형상을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 초목조수를 활용하여 자아형상을 묘사한 것은 이처럼 용의주도하다. 이것을 보면 洪興祖가 굴원은 초목조수를 많이 알고 그 성질과 생태를 잘 연구한 사람이라고 찬탄한 것⁹⁾은 지나치지 않다.

攀木根以結蔕兮，	나무 뿌리를 가지고 구리때를 엮고
貫薜荔之落蕊。	벽려초의 떨어진 꽃떨기를 꿰네.
矯菌桂以紉蕙兮，	계수나무 가지를 바로 펴서 혜초를 매고
索胡繩之纒纒。	호승의 밧줄을 길고도 곱게 꼬았네.
製芰荷以爲衣兮，	마름풀과 연꽃을 엮어 윗도리로 삼고
集芙蓉以爲裳。	부용을 모아서 치마로 삼네.
不吾知其亦已兮，	나를 몰라주어도 그만
苟余情其信芳。	내 마음은 진실로 향기롭네.

<離騷>

여기서도 갖가지 향초로 자신의 몸을 장식한다는 내용을 노래하고 있다. <이소>에는 향초로 자신의 몸을 장식한다는 내용이 뚜렷한 意象 체계를 형성하여 작품의 중요한 의상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기실 이러한 ‘好修’ 意象을 빼고 나면 굴원의 선천적인 자질, 도덕적 우월성, 높은 이상 등의 자아형상을 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만큼 작품에서 ‘호수’ 의상은 굴원의 성품을 표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구실을 한다. 선천적 자질, 도덕성, 이상 등의 성품과 성품을 수양하는 행위는 인간의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형상화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굴원은 구체적인 모습을 가진 향초의 아름다움과 향초로 장식하는 意象을 엮어서 자아형상을 창조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표현재료는 구체적이고 미세한 사물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 덕분에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남김없이 표출되었다. 이러한 서술방법은 함축의 묘를 강구하는 《시경》과는 자못 다른 면모이다.

‘好修’ 意象으로 자아형상을 창조하다 보니 자연히 향초는 아름다운 품성이나 그러한 품성을 지닌 인물을 상징하고, 악초는 사악한 품성이나 그러한 품성을 지닌

8) <楚辭章句·離騷>: 「木蘭去皮不死, 宿莽遇冬不枯。」

9) 洪興祖 <楚辭補注·離騷>: 「屈原眞所謂多識草木鳥獸, 而能盡究其所以情狀者歟!」

인물을 상징하게 되었다. 王逸은 이를 《시경》의 比興 전통을 계승한 것이라고 하면서 좋은 새와 향기로운 풀은 충성스럽고 곧은 신하, 사악한 짐승과 악취나는 사물은 참소하고 아첨하는 무리, 규릉과 난봉은 군자, 회오리 바람과 구름 및 무지개는 小人에 각각 비유한 것으로 파악하였다.¹⁰⁾

鸞鳥鳳皇,	난새와 봉황같은 길조들은
日以遠兮.	날마다 날아서 멀리 가버리고
燕雀烏鵲,	제비·참새·까마귀·까치같은 잡새들은
巢堂壇兮.	뜰안에서 등지를 트네.
露申辛夷,	露申과 辛夷같은 향초는
死林薄兮.	수풀사이에서 죽고
腥臊並御,	구린내 나는 악초는 모두 쓰여지는데
芳不得薄兮.	어떤 향초는 근처에도 못 가네.
〈九章·涉江〉	

〈九章·涉江〉의 亂辭 부분인데, 소재만 보고 제목을 붙인다면 '詠鳥'·'詠草'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연의 동식물을 집중적으로 운용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물상의 외형 또는 성질묘사는 아니다. 이 부분은 작품 속에서 세상의 선악이 바뀌어 자신과 같은 충신은 버림받거나 떠나고 오히려 참소하고 아첨하는 간신들이 조정에 중용되는 시대적 모순을 고발하고 있다. 시대적 모순을 선명하게 형상화하기 위해 자연의 동식물을 끌어와서 길조는 날아가버리고 잡새들이 등지를 들고 향초가 죽고 도리어 악초가 무성하다고 표현하였다. 난새와 봉황은 영명하고 크다는 점에서 현신과 류가 되고, 露申과 辛夷는 향기롭다는 점에서 현신과 류가 되어 비유를 이룬다. 또한 제비·참새·까마귀·까치 등은 작고 말이 많다는 점에서 간신과 류가 되고, 구린내 나는 악초는 잡스럽고 향기롭지 못하다는 점에서 간신과 류가 되어 비유를 이룬다. 이 부분은 자연의 동식물을 소재로 노래한다는 점에서 어떠한 詠物이고, 자연물과 인물(추상적인 인품)이 뚜렷이 비유구조를 형성하여 특정한 意象을 상징한다 점에서 比德이라 할 수 있으므로 양자를 합친다면 詠物比德이 된다.

余既滋蘭之九畹兮,	나는 난초 九畹을 기르고
又樹蕙之百畝.	또 혜초 百畝를 심었네.

10) 《楚辭章句·離騷經序》: 「《離騷》之文, 依詩取興, 引類譬喻. 故善鳥香草, 以配忠貞; 惡禽臭物, 以比讒佞; 靈修美人, 以媲於君; 宓妃佚女, 以譬賢臣; 虯龍鸞鳳, 以託君子; 飄風雲霓, 以為小人。」

畦留夷與揭車兮, 유이와 계거를 심고
 雜杜衡與芳芷. 두형과 방지도 함께 어우러 놓았네.
 冀枝葉之峻茂兮, 가지와 잎이 무성해지기를 기다려
 願埃時乎吾將刈. 때를 기다려 내 장차 베려했더니만.
 雖萎絕其亦何傷兮, 비록 시드러진들 또한 어찌 슬플까마는
 哀衆芳之蕪穢. 못 향기가 황폐해짐이 서럽네.
 <離騷>

蘭芷變而不芳兮, 난초와 구리매는 변하여 향기를 잃고
 荃蕙化而爲茅. 전초와 혜초는 변하여 띠풀이 되네.
 何昔日之芳草兮, 어찌 그 옛날 향기롭던 풀이
 今直爲此蕭艾也? 지금엔 썩덤불이 되었는가?
 豈其有他故兮, 그 이유가 어찌 다른 데 있겠는가?
 莫好修之害也!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이 없었던 폐단일세.
 余以蘭爲可恃兮, 나는 난초는 그래도 믿을 수 있다고 여겼는데
 羌無實而容長. 아! 실속은 없고 허울만 좋구나.
 委厥美以從俗兮, 그 아름다움은 버려두고 세속을 좇아
 苟得列乎衆芳. 구차히 못 꽃들 사이에 끼었네.
 椒專佞以慢愒兮, 산초 나무는 오로지 아첨하고 방자하며
 櫛又欲充夫佩褱. 수유 나무는 또 향주머니를 가득 채우려 하니.
 旣干進而務入兮, 승진을 구하고 들어가기에 힘쓰니
 又何芳之能祗. 또한 어찌 향초가 능히 향기를 낼 수 있으리?
 固時俗之流從兮, 본디 時俗은 흐름을 따라가는 법이니
 又孰能無變化? 또한 누가 능히 변치 않으리오?
 覽椒蘭其若茲兮, 산초와 난초를 보아도 이러하거늘
 又況揭車與江離? 계거와 강리아 말해 무엇하겠는가?
 惟茲佩之可貴兮, 다만 이 허리띠는 소중한데
 委厥美而歷茲.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아름다움을 저버렸네.
 <離騷>

이것 자체로만 보면 제목을 '詠香草'라고 붙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각종 향초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래하였다. 물론 단순히 향초의 외형이나 속성을 노래한 것이 아니며 여기에 나온 향초들은 모두 인물을 상징하는 비유물로 운용되었다. '修'를 지극히 숭상하는 굴원이니 '修'에 적합한 아름답고 향기로운 향초를 좋아한다. 향초가 오래도록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본래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항상 향기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잡초가 되어버리고 만다. 아끼던 향초가 잡초가 되어 시들고 향기를 잃으면 애석한 일이다. 표면적으로 보면 향초에 대한 이러한 정서를 묘사하지만 향초를 모두 비유로 운용하였으니, 속뜻은 훌륭한 인재들

이 시대에 영합하여 소인배로 전락했고, 그로 인해 애석하고 슬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굴원은 초나라의 왕족으로 일찍이 회왕 때에 출사하여 왕족의 인재를 관리하는 직책을 맡고 있었으므로¹¹⁾ 인재양성에 힘을 기울였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이 힘써 키우고 장래에 나라의 동량이 되어주기를 기대했던 인재들이 소인배로 전락했으니, 자신과 뜻을 같이하여 나라를 구할 사람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난초와 같은 인재도 실속은 없고 결만 번지르한 인물이 되었으니 참담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은 모두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이 없었던 폐단(莫好修之害也)」이라고 한탄하였다. 위에서 「荃蕙化而爲茅」의 ‘荃’은 어진 신하를 비유하지만 다른 곳에서는 ‘蓀’과 동일하게 쓰여 임금(<이소>·<구장>)의 경우)이나 신령(<구가>)의 경우)을 지칭한다. 이런 것을 보면 초사의 향초는 막연히 훌륭한 인물을 상징할 뿐 일대일 대응으로 비유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2. 詠物自況

초사 가운데 감정이입의 방법으로 사물에 자아를 投射시켜 자아와 사물이 완전히 일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사물의 형상이 시적 자아의 형상을 기탁하여 비유하므로 詠物自況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때 기탁되는 동식물이 곧 자아를 대변하므로 그 동식물은 흔히 의인화된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영물비덕과는 다르다. 첫째, 영물비덕은 비유하는 사물(喻體)과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本體)이 부분적인 면에서 유사관계를 이루지만, 영물자황은 사물과 자아가 일체가 된다. 이를테면, <이소>에서 향초로 賢臣을 나타낼 때,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후각적으로 향기로운 향초의 성질과 아름답고 훌륭한 현신의 인품이 유사관계를 이루어 향초가 현신을 비유하게 된다. 즉 향초의 시각적인 아름다움, 후각적인 향기와 인간의 내면적인 아름다움, 인품적인 향기가 유사관계를 이루어 비유가 형성된다. 요컨대 영물비덕은 부분적인 면에서만 유사관계가 있을 뿐이다. 이에 비해 영물자황은 전체적인 면에서 옅은 대상인 사물 그 자체가 자아이고 자아를 대변한다는 점에서 영물비덕과는 구별된다. 둘째, 비덕에서 비유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본체가 시적 자아 또는 제삼자가 될 수 있지만 자황의 본체는 반드시 시적 자아이다. <이소>에서 온갖 향초들은 비덕의 방법을 통해 굴원 자신을 비유하기도 하지만 임금, 현신, 후진 등

11) 《楚辭章句·離騷經序》: 「屈原與楚同姓, 仕於懷王, 爲三閭大夫. 三閭之職, 掌王族三姓, 曰昭屈景. 屈原序其譜屬, 率其賢良, 以厲國士。」

다양한 인물을 비유한다. 그래서 향초는 여러 가지 함축성을 지닌다. 그러나 자황에서 비유되는 객관 사물은 반드시 자아의 분신이다. 여기에 속하는 것은 <九章·橘頌>과 <九章·抽思>의 일부분이 대표적이다.

后皇嘉樹，	하늘과 땅이 낳은 아름다운 나무
橘徠服兮。	귤이 여기에 와서 풍토에 어울리네.
受命不遷，	천지의 명령을 받고 다른 곳에 옮기지 않고
生南國兮。	오직 남국에서만 사네.
深固難徙，	뿌리가 깊고 단단해서 옮기기 어렵나니
更壹志兮。	더욱이 뜻을 한결같이 하네.
綠葉素榮，	푸른 잎에 흰 꽃이 피는데
紛其可喜兮。	무성하여 가히 사람을 즐겁게 하네.
曾枝剌棘，	겹쳐진 가지마다 날카로운 가지 돋고
圓果搏兮。	등그런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네.
青黃雜糅，	푸른 것 누른 것이 한데 어우러져서
文章爛兮。	그 빛이 찬란하구나.
精色內白，	밝은 색깔에 깨끗한 속
類可任兮。	마치 重任을 맡을 성품과 같네.
紛纒宜脩，	향기가 그윽하여 마땅히 장식할만하고
媿而不醜兮。	보기도 좋고 추악하지 않네.

嗟爾幼志，	아! 어릴 때의 네 뜻은
有以異兮。	남다른 데가 있었네.
獨立不遷，	홀로 우뚝 서서 옮기지 않으니
豈不可喜兮。	어찌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겠는가?
深固難徙，	뿌리가 깊고 단단해서 옮기기 어렵고
廓其無求兮。	마음이 넓어서 구하는 것이 없네.
蘇世獨立，	깨친 바가 있어 홀로 우뚝 서서
橫而不流兮。	제 뜻대로 살며 세속에 따르지 않네.
閉心自慎，	마음을 굳게 닫고 스스로 삼가하여
不終失過兮。	종신토록 과실을 저지르지 않네.
秉德無私，	좋은 품성을 가지고 사심이 없으니
參天地兮。	天地와 함께 하겠네.
願歲并謝，	원컨대 추운 겨울에 나무가 모두 시들어도
與長友兮。	길이길이 그대와 함께 벗하고 싶네.
淑離不淫，	착하고 이롭담고 음란하지 않으며
梗其有理兮。	굳세게 자신의 도리를 지키네.
年歲雖少，	네 나이 비록 어리나
可師長兮。	가히 스승이나 웃어른으로 삼을만하고
行比伯夷，	그 행실이 伯夷와 견줄만하니

圖以爲像兮. 여기에 두어 모범으로 삼으리.
 <九章·橘頌>

<굴송>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편이 굴을 노래하는 영물이므로 제목을 '詠橘'이라 붙일 수 있는 시이다. 전편이 영물인 시는 초사에서도 유일하며 《시경》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굴송>은 중국시가사상 최초의 영물시이다.¹²⁾ 제목의 '頌'은 《시경》의 頌과 같지만 <굴송>은 《시경》의 송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였다. 《시경》의 송은 시·음악·춤 삼위일체가 되고 주로 종묘의 제사에 사용되었지만, <굴송>은 誦詩로서 음악·춤과는 구체적인 관련이 없고 제사와도 무관하다. 제목의 '굴송'이란 '굴에 대한 찬가' 정도를 의미할 뿐 이미 시의 체제와는 거리가 멀다. 또한 내용도 객관적인 자연물인 굴을 찬미하면서 굴을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였다. 《文心雕龍·頌贊》에서 「굴원의 <굴송>은 감정과 문체가 모두 아름답고 비슷한 종류를 끌어서 자신의 뜻을 기탁했으니 또한 頌의 영역이 자세한 사물에까지 확대되었다.」¹³⁾라고 하였는데, 「자세한 사물에까지 확대되었다(覃及細物)」라는 말은 시인의 심미적인 안목이 자질구레한 사물에까지 확대되어 그 사물을 독립적인 심미대상으로 표현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영물시의 함의와 일치한다.

모두 36구로 이루어진 이 시는 제1구에서 16구까지 전반부, 제17구에서 32구까지 후반부로 나누어진다. 대체로 전반부는 굴의 외형미, 후반부는 굴의 내재미를 묘사했다. 표면적으로 굴을 노래하고 있으나 굴은 굴원 자신의 기탁이다. 굴원의 입장에서 보면, 굴은 자신의 모든 것이 반영된 투사체이며 자신을 대변하는 대변자이다. 시인은 주관적 감정을 굴이란 객관사물에 투사하였으므로 자신의 인품·개성·이상·정신·정감 등이 굴의 형상에 반영되었다. 따라서 굴의 형상은 바로 시인의 자아형상이다. 清代 林雲銘은 <굴송>을 평하여, 굴을 읊조리면서도 완전히 굴을 읊조린 것이 아니며, 굴원과 굴은 서로 투영되어 거울에 비친 꽃과 물에 비친 달의 관계로 보았는데,¹⁴⁾ 「거울에 비친 꽃과 물에 비친 달(鏡花水月)」이란 말은 <굴송>에서 굴원과 굴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적절한 용어이다. 당시 굴원은 일신을 맡겼

12) 黃益庸·衣殿臣 《歷代詠物詩》: 「它(橘頌)是中國詩歌史上第一首詠物詩。」(北京, 大眾文藝出版社, 2000), 9쪽.

13) 《文心雕龍·頌贊》: 「三閩橘頌, 情采芬芳, 比類寓意, 又覃及細物也。」

14) 林雲銘 《楚辭選》: 「句句是頌橘, 句句不是頌橘, 但見原與橘分不得是一是二, 彼此互映, 有鏡花水月之妙。」(臺北, 廣文書局, 1972), 225쪽.

던 군주에게 버림받고 경쟁자로부터 참소 당했으며, 게다가 믿었던 중신들이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아끼던 후진들도 변절해 버렸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추방당하여 홀로 외톨이가 되었다. 의지할 곳 없고 하소연할 데 없는 그에게 차라리 말하지 못하는 초목조수가 좋은 친구였다. 또한 오랜 유랑과 시름으로 「얼굴이 초췌하고 모습이 바짝 말라」¹⁵⁾ 자신의 정체성마저 잃어 버릴 상태에서 문득 굴을 바라보고, 굴의 모습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런 시기에 <굴송>을 지었다면 굴의 형상을 통하여 자신의 참모습을 나타내 고자 했을 것이다.

有鳥自南兮，	남쪽에서 온 새 한 마리
來集漢北。	漢水の 북쪽에 와서 머무네.
好娉佳麗兮，	지극히 곱고도 아름답다운데
陸獨處此異域。	고향을 떠나 홀로 이 지역만리 땅에 사네.
既惻獨而不羣兮，	혼자 외로이 무리를 떠나 있고
又無良媒在其側。	또 걸엔 좋은 친구 하나 없네.
道卓遠而日忘兮，	길은 아득히 멀어 날이 갈수록 잊혀지고
願自申而不得。	마음 털어놓으려 하나 그럴 수도 없네.
望北山而流涕兮，	북쪽산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臨流水而太息。	흐르는 물가에서 크게 한숨쉬네.
〈九章·抽思〉	

<九章·抽思> 가운데 '倡曰'의 일부분인데, 남쪽에서 온 새에 자신의 영혼을 투영시켜 자신의 외로운 신세를 토로하고 있다. 자신과 새가 모두 남쪽에서 왔다는 점, 현재 외롭게 지낸다는 점, 고향으로 돌아가려 하나 그럴 수도 없다는 점 등이 비슷한 신세이기 때문에 동병상련을 느껴 새에 자신을 기탁한 것이다. 새에 자신의 감정이 이입되어 새의 형상이 곧 자신의 형상이요, 새의 심정이 곧 자신의 심정이다. 그래서 제8구의 「마음 털어놓으려 하나 그럴 수도 없네(願自申而不得)」, 제9구의 「눈물 흘리네(流涕)」, 제10구의 「크게 한숨쉬네(太息)」 등과 같이 의인화되었다. 이 부분에 대한 <楚辭補注>에는 子思의 말을 인용하여 의심스러우면 날아가는 새의 생태가 덕이 쇠하면 떠나가는 군자의 道와 비슷하기 때문에 옛날부터 흔히 자신을 새에 비유한다고 했다.¹⁶⁾ 새에 자신을 기탁한 예가 이미 <시경>의 <幽風

15) <漁父>: 「顏色憔悴, 形容枯槁。」

16) <楚辭補注·九章·抽思>: 「子思曰: 君子猶鳥也, 疑之則舉矣。色斯舉矣, 翔而後集。故古人以自喻。」

· 鷓鴣 <小雅· 鷓鴣> <小雅· 黃鳥> 등에도 있는 것을 보면¹⁷⁾ 새를 통해 자신의 심정을 대변하는 기탁은 고대인의 습성인 듯하다.

3. 詠物憂國

중국에서는 굴원을 흔히 만고에 빛나는 애국시인 또는 우국시인으로 추앙한다. 무엇이 그토록 빛나는 이름을 남기게 하였을까? 사료에 기록된 그의 전기는 이런 해답을 찾기에 불충분하다. 굴원은 초나라의 왕족 신분으로서 일찍이 왕실과 나라의 중대사를 담당하였다. 그는 한때 懷王의 左徒가 되어 「조정 안에서는 왕과 더불어 국사를 의논하여 명령을 내고, 밖에 나아가서는 외국의 빈객을 만나고 제후를 응대하였다」¹⁸⁾라고 할 정도로 국가의 운명과 장래를 결정하는 일을 관장하였다. 그러다가 정치의 소용돌이에서 黨人의 참소를 받고 조정에서 추방되었다. 초야를 전전하면서 임금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시를 지었다. 작품을 통하여 자신의 충정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분개하고 諫言하였으나 끝내 자신은 추방당한 신세이고, 급기야 초나라는 날로 국세가 기울어 국운을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에 돌을 안고 硃라강에 투신함으로써 일생을 마감하였다. 《史記· 屈原列傳》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그의 행적은 이 정도에 불과하다.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이라면 전장에 나가 싸우다 전사한 병사나 장수, 외국에 외교사신으로 갔다가 억류되어 죽임을 당한 사람, 원수의 나라 군주를 처단하려다가 죽은 자객, 성곽을 쌓다가 죽은 장정 등등 수없이 많다. 그럼에도 그들은 역사 저편으로 사라지거나 묻혀서 대부분 이름조차 남기지 못하였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의 애국행적이 굴원보다 못하지 않음에도 그들의 이름은 빛나지 못하고 유독 굴원의 이름만 빛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는 위대한 시를 지어 스스로 이름을 남겼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시가 후세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감동을 주었기 때문이다. 어쩌면 사마천이 그를 역사의 심연 속에서 끌어내어 빛나게 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남긴 시의 위력 때문인지도 모른다.

그의 작품(屈賦)에는 나라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심정이 거의 전 작품을 통하

17) <離風· 鷓鴣>는 周公이 자신을 모함하는 낭설에 대하여 자신을 새에 기탁하여 지은 시이고, <小雅· 鷓鴣>은 신분이 미천하고 생활이 수고로와 의탁할 것을 생각한 자가 새의 말을 하여 자신을 비유한 것이며, <小雅· 黃鳥>는 다른 나라에 옮겨가서 살고자 한 백성이 그 곳에서 살 곳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황조에 기탁하여 원망한 시이다.

18) 《史記· 屈原列傳》: 「入則與王圖議國事, 以出號令; 出則接遇賓客, 應對諸侯。」

여 절절히 반영되어 있다. 대표작인 <이소>에는 忠君愛國 또는 憂國表情이 전편에 걸쳐 드러나 있으며, 왕일도 <九章序>에서 「굴원이 강남의 들에 쫓겨나 있으면서 임금과 나라를 생각하였는데 근심스런 생각이 끝이 없었으므로 다시 <구장>을 지었다」¹⁹⁾라고 하여 창작동기가 우국충정에서 비롯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작품에서 이러한 정서가 조국의 산·강·호수·초목·조수 등을 읊조림으로써 드러나기도 하였고, 또 그렇게 표현되었을 때 그 정서가 증폭되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指幡冢之西隈兮， 與繡黃以爲期。 開春發歲兮， 白日出之悠悠。 吾將蕩志而愉樂兮， 遡江夏以娛憂。 擘大薄之芳蒞兮， 牽長洲之宿莽。 惜吾不及古人兮， 吾誰與玩此芳草？ 解蕩薄與雜菜兮， 備以爲交佩。 佩繽紛以繚轉兮， 遂萎絕而離異。 吾且儷儷以娛憂兮， 觀南人之變態。 竊快在中心兮， 揚厥憑而不俟。	漢水の發源地인 파총산 서쪽 기슭을 가리키며 어두워지면 만나길 기약하네. 봄이 열리고 새해가 시작되면 하얀 태양이 동쪽에서 서서히 솟아오르리. 나는 장차 호탕한 마음으로 즐겁게 하고자 장강의 夏水를 따라 거닐며 시름을 달래보리. 우거진 덩굴 속에서 향기로운 여수리를 캐고 길다란 모래톱에서 숙망을 캐네. 내 옛 성인을 만날 수 없음을 애석히 여기노니 내 누구와 더불어 이 향초를 감상하리? 마디풀과 여러 가지 풀을 캐어 잘 엮어서 좌우의 허리띠로 삼네. 허리띠는 어우러져 휘감겼는데 끝내 말라 비틀어지고 말았네. 내 잠시 배회하고 시름을 달래면서 남쪽 사람들의 이상한 풍습을 살피네. 남몰래 마음 속에 즐거워지나니 이 근심 털어내어 기다릴 것이 없으라.
------------------------------------------------------------------------------------------------------------------------------------------------------------------------------------------------------------	---------------------------------------------------------------------------------------------------------------------------------------------------------------------------------------------------------------------------------------------------------------------------------------------------------------------------------------------------------------------------------------------------------------------------------

<九章·思美人>

蔣驥의 고증에 의하면 <思美人>은 懷王 때 漢北에 추방되었을 무렵 <抽思>를 짓고 난 뒤 쓴 것이다.²⁰⁾ 따라서 제목의 '미인'이란 회왕을 가리킨다. 작품의 전체적인 내용은 추방당한 뒤에도 처음 품은 뜻을 굽히지 않을 것이라는 불요불굴의 정신, 언제나 회왕에게 자신의 충직한 간언을 전해보려 하지만 전달자도 없고 어찌 할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죽음으로 간언할 것이라는 결심 등 회왕에 대한 지극한 忠貞을 반영하였다. <이소>와 <구장>에서 자신의 충정과 애국정감을 표현할 때, 흔히 초나라의 산천초목을 노래하였는데, 위의 인용문에서도 파총산 서쪽

19) 《楚辭章句·九章序》:「屈原放於江南之野，思君念國，憂思罔極，故復作九章。」

20) 蔣驥《山帶閣註楚辭·九章·思美人》:「此亦懷王時斥居漢北之辭，蓋繼抽思而作者也。」

기슭(蟠冢之西隈), 장강의 하수(江夏), 향기로운 어수리(芳蔭), 숙망(宿莽), 미디풀과 여러 가지 풀(蕭薄與雜菜) 등을 노래하였다. 하수(夏水)는 郢都의 동남쪽에 있고 당시 굴원이 있는 한북은 영도의 서북쪽에 있으니 굴원이 실제로 하수를 보면서 노래한 것이 아니라 상상을 통하여 「장강의 夏水를 따라 거닐며 시름을 달래보리」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노래함으로써 지나거나 회왕을 걱정하는 충정, 꿈에도 고국산천을 잊지 못하는 그리움, 하루 속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향수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었다. 굴원 이후 산천경물을 노래함으로써 우국의 정감을 표출하는 방법은 뚜렷한 하나의 패턴이 되었다.

皇天平分四時兮，	하늘은 사계절을 골고루 나누었는데，
竊獨悲此廬秋。	나는 유독 이 가을에 슬프네.
白露既下百草兮，	이슬이 온갖 풀위에 내렸으니
奄離披此梧楸。	홀연 오동·가래 잎이 말라 떨어지리라.
去白日之昭昭兮，	햇빛 찬란한 여름을 지나서
襲長夜之悠悠。	기나긴 가을밤에 접어들었다.
離芳藹之方壯兮，	향기롭고 건장한 때를 지나
余萎約而悲愁。	나는 시들고 병들어 슬프고 시름짓네.
秋既先戒以白露兮，	이슬이 내려 이미 가을이 왔음을 알려주고
冬又申之以嚴霜。	매서운 서리가 내려 겨울이 올 것을 알려준다.
收恢台之孟夏兮，	왕성한 한 여름의 기운을 거두어
然欲傑而沈藏。	서운하게 잠기고 숨어버렸네.
葉菸邑而無色兮，	잎은 파리해져 빛을 잃고
枝頹掣而交橫，	가지는 서로 엇혀 어지럽다.
顏淫溢而將罷兮，	그 모습은 창백해져 곧 떨어질 것 같고
柯彷彿而萎黃。	가지는 말라서 누렇게 뜬 것 같네.
前櫛櫨之可哀兮，	양상하게 잎이 떨어져 애처롭고
形銷鑠而愁傷。	형체는 쪼그라들고 병이 들었네.
惟其紛糝而將落兮，	생각건대 가지와 잎이 어지럽고 떨어지려 할 때
恨其失時而無當。	손쓸 시간을 놓쳐 잘못되었음을 한탄하네.

<九辯>

<구변>은 굴원의 제자 宋玉이 그 스승의 신세와 뜻을 애석히 여겨 지은 것이라고 전해진다. 그래서 문장도 <이소>를 답습하고, 내용도 한결같이 굴원의 애국충정과 思君之心을 노래하였다. 위의 인용문은 제목을 ‘詠秋’ 또는 ‘悲秋’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가을의 풍경과 서정을 잘 노래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단순히 오동나무·가래나무·이슬·서리 등을 동원하여 가을 풍경과 그 계절에 처한 굴원의

신세, 외로움과 처량함 등을 표현한 것 같으나 이면에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조국의 처지와 그것을 대하는 굴원의 우국정감을 노래하고 있다. 한때 초나라는 戰國 열강 가운데 영토가 가장 크고 국력도 최강이었으나 전국말기에 이르러 국세가 급속도로 약화되어 점차 영토를 침탈 당하고 멸망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때 굴원은 추방당하여 국관을 맡면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는 유배자의 신세였다. 외롭고 처량한 자신의 신세도 안타깝지만 그보다 조국의 현실과 장래는 개인의 안위를 돌볼 겨를도 없이 국가의 비운을 노래하게 하였다. 송옥은 이러한 굴원의 입장을 대변하여 계절, 굴원, 초나라를 한데 융해하였다. 즉 가을을 만물이 성장하는 왕성한 여름이 지난 조락의 계절이며 이슬과 서리를 맞아 나뭇잎이 떨어지고 가지가 앙상한 계절로 노래하였고, 그 이면에 한창 때를 지나 죽음 앞에 서 있는 굴원의 신세와 번영기를 지나고 멸망의 위기에 처한 초나라의 처지를 동시에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4. 詠物祭神

<구가>는 본래 초나라 민간에서 유행하고 있던 巫歌 혹은 祭神歌曲을 굴원이 윤색하여 개작한 가사라고 전해진다. 어느 정도 윤색·개작했다고는 하나 오늘날 전해지는 <구가>에는 원시인들의 생활과 이상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원시시대에 인류는 안정된 생활과 행복한 미래를 갈망했고, 그러한 생활과 미래는 대개 그들을 둘러싼 대자연의 조화와 운행에 의존한다고 생각하였다. 몽매한 그들은 대자연의 조화와 운행을 주관하는 그 무엇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하늘·태양·구름·산·강·나무·화초 등을 신격화하여 이들을 주관하는 주재자에게 제사지냄으로써 안정된 생활과 행복한 미래를 염원했다. <구가>에도 迎神·娛神·送神의 祭神歌曲 형식을 통해 원시인들의 각종 생활 경험을 반영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대자연에 대한 인류의 관찰, 남녀의 애정생활, 인류의 생로병사, 홍수와 재난에 대한 투쟁, 조국을 수호하고자 하는 병사들의 애국심 등을 노래하고 있다. 그 가운데 자연에 대한 찬미가 <구가>의 주제 가운데 하나로서,²¹⁾ 이들 제신가곡의 내용은 주로 신이 주재하는 자연현상이나 자연물을 예찬함으로써 신에 대한 지극한 공경과 신의 직분과 특징 등을 묘사하였다. 자연현상이나 자연물을 묘사한 부분은 영물시의 특징

21) 呂晴飛 《屈原詩歌評賞》：「〈九歌〉의主題之一是對自然的歌頌，并崇奉為各種神靈，加以膜拜。」（北京，中國婦女出版社，1991），121쪽.

을 갖추고 있으며, 이들을 예찬하여 신에게 제사지내는 목적에 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영물제신이라고 할 수 있다.

詠 日	敬將出兮東方, 照吾檻兮扶桑. 撫余馬兮安驅, 夜皎皎兮既明. 駕龍輈兮乘雷, 載震旗兮委蛇.	따뜻한 햇빛이 바야흐로 동방에서 나와 扶桑에서 나의 난간을 비추네. 내말을 어루만져 조용히 달리노라니 밤은 환하게 이미 밝아졌네. 용으로 갈채매어 천둥을 잡아타고 구름 깃발 꽃아 퍼일 뿔 날리네.
	長太息兮將上, 心低徊兮顧懷. 羌聲色兮娛人, 觀者愴兮忘歸. 楛瑟兮交鼓, 簫鐘兮瑤簫. 鳴虬兮吹竽, 思靈保兮賢媿. 翺飛兮翠曾, 展詩兮會舞. 應律兮合節, 靈之來兮蔽日.	길게 탄식하며 장차 하늘로 오르려다 마음이 망설여져 돌아보며 생각하네. 아! 소리와 색이 사람을 즐겁게 하나니 보는 사람 즐거워 돌아갈 줄 몰라라. 촉급한 거문고 소리에 번갈아 북을 치고 옥 북틀에 쇠북 걸어 등둥 울리네. 지피리 울리고 생황 소리 울려 퍼지니 아! 神巫는 어질고도 아름답되라. 조금 나는듯 춤추다가 갑자기 걸음 들어울리고 시를 읊조리며 함께 춤을 추네. 六律에 맞추고 節奏에 맞추니 신령들이 해를 가리고 내려오시도다.
祭 神	青雲衣兮白霓裳, 擧長矢兮射天狼. 操余弧兮反淪降, 援北斗兮酌桂漿. 撰余轡兮高駘翔, 杳冥冥兮以東行.	푸른 구름 옷도리 삼고 흰 무지개 치마 삼아 긴 화살 높이 들어서 天狼星을 쏘네. 弧矢星을 잡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北斗星을 끌어 계수나무 술을 따르네. 말고삐 휘어잡고 높이 치달아 올라 깜깜한 밤에 동쪽으로 가네.
詠 日		

<九歌·東君>

<동군>은 日神에게 제사지내는 가곡이다. 이 노래는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첫 6구와 끝 6구는 태양이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광경을 묘사한 詠日 부분이며, 가운데 제7구에서 18구까지는 제사지내는 祀神의 상황과 무녀의 춤을 형상화한 祭神 부분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詠日祭神이라 할 수 있다. 영일 부분에서 첫 6구는 아침에 태양이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광경을 묘사하였고, 끝 6구도 다음날 또 다시 태양이 뜨는 형상을 묘사하였다. 제2·3구에서 태양 자신을 인칭대명사 ‘吾’ ‘余’로 표현한 점이나 제19구에서 ‘푸른 구름 옷도리 삼고 흰 무지개 치마 삼아(青雲衣兮白霓裳),’라고 표현한 점은 태양을 의인화한 것이며, 영일 부분은 앞뒤로 태양을 막강한 위력을 가진 존재로 형상화하였다. 이 부분만 놓고 볼 때, 제목을 ‘日’ 또는 ‘詠日’로 붙여서 태양에 대한 영물시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古詩描寫大全》(原題: 詠物詩選)의 '詠天' 부분 첫머리에 唐나라 李嶠의 <日>이란 영물시를 수록하고 있는데, 이 시는 다음과 같다.

日出扶桑路,	태양이 부상 길에서 나와
遙升若木枝.	아득히 약목 가지에 올라왔네.
雲間五色滿,	구름 사이로 오색빛이 찬란하고
霞際九光披.	노을 사이로 온갓빛이 비취오네.
東陸蒼龍駕,	동쪽 땅에서 창룡이 끌고
南郊赤羽遲.	남쪽 교외에서 붉은 새가 천천히 움직이네.
傾心比葵藿,	마음이 해바라기와 같이 쏠려서
朝夕奉光曦.	아침 저녁으로 찬란한 햇빛을 모시네.

唐 李嶠<日>

시의 형식은 <동군>과 다르지만 내용이나 태양을 형상화하는 방법에 있어 <동군>과 비슷한 점이 많다. 태양의 형상을 묘사하기 위해 전설상의 나무인 '扶桑'을 동원한 점이나 태양을 의인화하여 막강한 위력을 가진 존재로 표현한 점은 <동군>과 일맥상통한다.

A	若有人兮山之阿,	마치 사람같은 것이 산기슭에 있는데
	被薜荔兮帶女羅.	벽려초 걸치고 女羅따를 매었네.
	既含睇兮又宜笑,	살며시 걸눈질하며 또 웃어보이니
	子慕予兮善窈窕.	그대는 나의 아름다운 모습 사모했어라.
	乘赤豹兮從文狸,	붉은 표범 타고 얼룩 이리 데리고
	辛夷車兮結桂旗.	辛夷나무 수레 타고 계수나무 깃발 엮네.
	被石蘭兮帶杜衡,	석란을 걸치고 두형따를 매고
	折芳馨兮遺所思.	향초 꺾어 사모하는 이에게 주리.
	余處幽篁兮終不見天,	깊은 대숲에 갇혀 하늘을 보지 못하고
	路險難兮獨後來.	길조차 험난하여 나만 늦게 왔네.
B	表獨立兮山之上,	우뚝 홀로 산위에 서 있노라니
	雲容容兮而在下.	구름은 몽게몽게 산 아래에 피어있고
	杳冥冥兮羌曠晦,	숲속이 캄캄하여 대낮도 그믐 같은데
A	東風飄兮神靈雨.	東風이 몰아치자 신령은 비를 내리게 하네.
	留靈修兮憺忘歸,	신령을 머물게 하여 돌아갈 생각 잊게 했으면
B	歲既晏兮孰華予?	이 나이 늙어지면 누가 나를 꽃 피우리?
	采三秀兮於山間,	산 사이에서 靈芝를 캐려하는데
	石磊磊兮葛蔓蔓.	돌은 첩첩이 쌓여 있고 칩닝쿨이 뻗어 있네.

A	怨公子兮悵忘歸， 君思我兮不得閒。 山中人兮芳杜若， 飲石泉兮蔭松柏， 君思我兮然疑作。	그대를 원망하며 서러워 돌아갈 줄 모르나니
		그대 날 생각코도 오실 틈이 없는 것이겠지요
		산에 사는 이 몸이야 두약으로 향기롭게 하고
		들샘물 마시고 소나무와 측백나무를 그늘 삼는데
B	雷填填兮雨冥冥， 猿啾啾兮又夜鳴。 風颯颯兮木蕭蕭，	그대 날 생각코도 여전히 의심하는 것일까?
		우렛소리 우르르 비는 캄캄하게 내리고
		잔나비 밤에도 구슬피 울어대네.
A	一思公子兮徒離憂。	바람은 선들선들 나무는 흔들흔들
		그대 생각하며 다만 시름에 젖나니.
〈九歌·山鬼〉		

〈山鬼〉는 산신에게 제사지내는 노래인데, 가사는 한 소녀(山神)가 공자를 사모하여 사랑을 추구하지만 끝내 실패하는 애정고사가 중심을 이루며, 그 가운데 산의 정경을 군데군데 묘사하고 있다. 가사를 두 부분으로 나눌 때, A 부분은 산신의 애정고사, B 부분은 산중의 정경을 묘사하였다. A에 묘사된 산신은 어여쁜 소녀의 형상이며, 그녀의 걸모습은 벽려초를 걸치고 여라띠를 매었으며 石蘭으로 옷을 입고 杜衡을 허리띠로 장식한 소녀이며, 그녀는 공자의 사랑을 열렬히 추구하나 끝내 실패하여 공자를 원망하고 실망한다. B에 묘사된 산중은 산신이 활동하는 배경으로, 구름이 자욱한 산 속에 비가 내리고 돌과 칠푼굴이 얼혀 있으며 우렛소리와 바람소리 스산하고 잔나비가 우는 산중이다. 위와 같이 이 시는 애정고사와 산중의 정경이 결합되어 있다. 그런데, 만약 B 부분의 8구만 떼어서 하나의 시로 만든다면 산중의 음산한 기운을 묘사하는 좋은 영물시가 될 것이다. 이 8구는 내용상 한결같이 산중의 음산한 기운을 묘사하는 공통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형식상으로도 9개의 疊字를 운용하여 산중의 모양이나 소리를 묘사하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독립된 시로 간주할 수 있고, 제목을 '詠山中'이나 '山雨' 등으로 붙인다면 후세의 본격적인 영물시에 손색이 없을 것이다.

이외에도 <구가>에서 영물제신의 특징을 갖춘 것은 <湘君>·<湘夫人>·<河伯> 등이 있다. <湘君>·<湘夫人>은 湘水의 신에게 제사지내는 노래인데, 내용은 상수의 남신(舜)과 여신(娥皇과 女英)이 서로 사모하여 추구하는 남녀의 애정고사를 형상화하면서 중간중간에 그들이 활동하는 상수의 정경을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두 시는 애정고사와 상수의 정경이 어우러져 제신가곡을 형성하였다. <河伯>은 黃河의 신에게 제사지내는 노래인데, 내용은 황하의 남신과 洛水의 여신 사이에 애

정고사를 중심으로 그들이 활동하는 황하와 주위의 경물을 묘사하였다. 이 시도 제신에 목적이 있지만 바탕이 되는 것은 황하의 신이 활동하는 무대인 황하의 경물이다.

Ⅲ. 結語

주지하다시피 중국고대시가는 ‘言志’의 전통이 있다. 즉 시란 장르는 전통적으로 시인의 주관적인 정감을 표출하는 것을 위주로 한다. 이런 장르에서는 언제나 인간이 주된 표현대상이고 인간의 정감이 주제가 된다. 시인이 객관적인 사물을 묘사하더라도 인간과 연결시키고 시인의 정감을 효과적으로 표출하기 위해서 사물을 인용할 뿐이다. 그런 시에는 인간이 보고 느끼는 사물을 묘사하기 때문에 사물을 빌려 인간의 ‘志’를 서술하고 사물에 의탁하여 인간의 ‘情’을 표출한다. 반면 영물은 ‘體物’을 위주로 한다. ‘체물’은 사물 자체가 독립적인 심미대상이고 주된 표현대상이고 주제가 된다. ‘언지’에서 인간의 정감이 주이고 사물이 좋이라면 ‘체물’에서는 사물이 주이고 인간의 정감은 좋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국시는 처음부터 영물시로 발전하기 어려운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사에서 후세 영물시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대량으로 발견하였다. 앞서 초사에서 부분적인 영물이거나 영물적 요소를 지닌 것들을 정리하여 영물비덕, 영물자황, 영물우국, 영물계신 등 네 가지로 개괄하였는데, 중국시가 영물로 발전하기 어려운 한계를 감안하면 초사는 상당히 이른 시기에 영물의 길로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그 이유는 초사가 일찍부터 시에서 벗어나 賦를 향하여 달렸기 때문이라고 본다. 굴원의 작품이 여러 가지 면에서 漢賦와 거리가 있지만 屈賦 혹은 屈原賦라고 부르는 것은 한부와 계승 관계가 있고 부의 특성을 갖추었기 때문인데, 부는 객관사물을 대상으로 미사여구를 늘어놓으면서 鋪張敍述을 능사로 삼는 장르이다. 그러므로 부는 처음부터 ‘체물’을 수용하여 쉽게 영물로 발전할 수 있는 성질을 가졌다. 漢代에 영물시보다 영물부가 먼저 성행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굴부는 굴원 개인의 주관적인 정감을 표출한 개성적인 작품이므로 창작동기가 ‘언지’에서 출발하고 있으나 서술방법은 《시경》의 ‘습蓄’에서 벗어나 ‘好修’의 방법을 운용하였다. ‘호수’는 ‘수식하기 좋아하는’ 굴원의 기질을 말하는데, 작품의 서술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가령 자신의 내면적 아름다움을 묘사할 때, 함축적으로 서술하거나 추상적으로 말하지 않고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물을 빌리거나 빗대어 서술함으로써 남김 없이 표출하려고 하였다. 또 영물계산에서 신에 대한 지극한 공경을 나타내기 위해서 신의 강림을 바라는 인간의 원망과 신의 활동무대인 자연을 꼭진하게 묘사하였다. 바로 이러한 '호수'의 서술태도가 '체물'을 가능케 함으로써 '言志詩'가 영물로 발전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였다.

물론 네 가지 영물 가운데 <굴송>을 제외하면 어느 것도 엄밀한 의미의 영물시라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그 이유는 첫째, 초사에서 <굴송> 외에 모든 작품은 영물을 부분적으로 다루었을 뿐이고 작품 전체에서 영물을 다루지 않았다는 점이고, 둘째, 객관적인 사물 자체가 독립된 심미대상으로 묘사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초사가 후세의 본격적인 영물부나 영물시와는 아직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초사는 '好修'를 능사로 서술하였고, 이러한 서술태도로 인하여 심미대상이 미세한 사물에 미치게 됨으로써 영물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러한 초사가 鋪張敘述하는 부로 발전하였고, 漢代에 부는 '體物'을 근간으로 하는 영물부를 낳았으며, 영물부가 육조의 영물시로 발전하였으므로 초사는 영물시의 직접적인 원류가 되는 것이다.

【參考文獻】

- 洪興祖 《楚辭補註》 臺北, 藝文印書館, 1981
 朱 熹 《楚辭集注》 臺北, 華正書局, 1974
 蔣 驥 《山帶閣注楚辭》 臺北, 長安出版社, 1989
 王夫之 《楚辭通釋》 臺北, 宏業書局, 1972
 林雲銘 《楚辭燈》 臺北, 廣文書局, 1972
 黃壽祺·梅桐生 譯注 《楚辭全譯》 貴陽, 貴州人民出版社, 1984
 陳子展 《楚辭直解》 江蘇省, 江蘇古籍出版社, 1988
 吳仁傑 《離騷草木疏》 臺北, 商務印書館, 1979
 程嘉哲 《九歌新注》 成都, 四川人民出版社, 1982
 呂晴飛 《屈原詩歌評賞》 北京, 中國婦女出版社, 1991
 周建忠 《楚辭論稿》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4
 林雲銘 《楚辭燈》 臺北, 廣文書局, 1971
 丁琴海 《古詩描寫大全》 北京, 國際文化出版公司, 1994
 閻采平 《齊梁詩歌研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1994

黃益庸·衣殿臣 《歷代詠物詩》 北京, 大眾文藝出版社, 2000

沈成鎬 <屈賦의 藝術性 研究> 成均館大學校 博士論文, 1994.

【中文提要】

詠物詩是指那些專門以‘物’為吟咏對象和描寫主體的詩作。在中國詠物詩的發展上，詠物詩確實盛行於六朝齊梁期間，然而它的源頭却可以溯源悠遠的先秦時期；《詩經》與楚辭。《詩經》裏已出現了不少詠物的佳句，而不能擺脫‘言志’的束縛，因此它沒走向‘體物’的詠物。詩言志而賦體物。言志的詩以表達主觀情志為特點，制約着詩人難以顧及對物的描寫，而體物的賦則以寫物為基本特點，好發展詠物。楚辭是賦的源流，運用了‘好修’的創作觀念，因而容易發展向詠物。本文正是根據這種觀點，將楚辭的詠物類型作如下四種分析研究。

第一，詠物比德。這是從人的角度去寫物，借物抒志的，如借香草比喻屈原自己的人品·君主·賢臣等。第二，詠物自況；把自我情感投影客觀事物，自我形象轉移客觀事物，以事物完全表達自我，如〈橘頌〉通過對橘樹形象的生動刻劃，表現出屈原高尚的志趣與堅強的性格，橘就是屈原的化身。第三，詠物憂國；楚辭大概包含着憂國情感或者愛國情緒，許多作品通過對山川草木的情景描寫，突出詩人的這些觀念。第四，詠物祭神。這種只出現於〈九歌〉裏，幾篇作品結合對自然物·自然現象的描寫與對諸神的描寫。

從上面的分析研究來看，可以知道楚辭裏面既詠物成分比較多，又具有四種體系。固然這四種不是完全的詠物詩，但楚辭可以說詠物詩的直接源流，因為詠物詩根據楚辭的這些詠物成分發展而出來。從楚辭發展到漢賦，漢賦生以體物為特徵的詠物賦，詠物賦影響詩歌，到六朝齊梁出現大量的詠物詩。

【주제어】

영물, 비덕, 자황, 우국, 제신, 호수